



디지털 환경기반 구축 노력

조직적인 B2B 사업 진행 계획

김판길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골 판지포장산업의 장단기 발전 전략과 지속성장 대안을 수립하는데 주력을 다하고 있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25일 팔래스 호텔에서 열린 제18기 정기총회에서 김판길 (주)산성피앤씨 대표 이사를 제7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먼저 조합의 과업을 저에게 맡겨주신데 대해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조합의 재정 안정화 수준을 더욱 공고히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업계 전체가 화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길 이사장은 남성단보루공업사 대표, 대광수출포장(주)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주)산성피앤씨 대표이사로 재임중이며 숭실대학원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

그는 골판지포장에 대해 “지난 150여년의 역사동안 골판지를 능가하는 포장소재는 없었다”며 “현재 최적의 친환경적 소재로 인정받고 있는 골판지 포장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

한 산업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판길 이사장은 주요 공약으로 “골판지포장산업진흥 및 비전 설정, 디지털 환경 기반 강화, 정보 교류 및 인력 양성, 골판지포장조합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내세웠다.

특히 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은 2002년을 ‘골판지포장산업 디지털 환경기반 강화의 해’로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여러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실행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업체들의 과잉 시설 및 과다 경쟁을 억제해 재정자립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골판지 업체를 국민들에게 PR할 계획을 추진 중이다.

김판길 이사장은 “지난 2월 초 산업부문 B2B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 ISP(정보전략수립설계도작성) 결과 발표회에서 공식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면서 골판지포장에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수단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B2B 사업에

“조합의 재정안정 수준 높일것”

대해 강조했다.

현재 골판지조합은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펼치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중이며 B2B 사이트를 농협중앙회에 접목해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골판지포장기업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환경기반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외 기술 개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골판지포장산업 전자상거래(B2B)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김 이사장은 “B2B 네트워크를 통해 단순히 물건을 공동 구매하는 차원을 넘어 골판지 포장의 기술혁신 및 고부가가치 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판길 이사장은 회원사의 홈페이지를 구축·관리 및 e-mail 계정, 골판지포장업계 표준 ERP 시스템의 웹(web)상에서 호환을 가능케 하고 정보문서표준화를 통해 골판지포장업계의 디지털지수를 높일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골판지조합은 신수요 창출을 위한 연구사업 기반의 하나로 미세플(micro flute)의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 미세플은 전체 화장품 케이스 포장의 40% 정도에 적용돼 합판지와 판지상자를 대체할 만한 제품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골판지 업계의 체계적인

전산화를 위해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확충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골판지 포장에 대한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골판지 포장의 효용 가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인식을 조속히 타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상품이 만들어지는데, 결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포장이며, 특히 골판지 포장은 부피산업인 동시에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이므로 협업의 형태로 업체가 발전할 때 조합도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김판길 이사장은 경영을 하는데 있어 신용을 ‘무형의 자산’으로 생각하며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신용만은 지키자”는 굳은 신념으로 골판지 업종을 영위해 왔다. 그 결과 김판길 이사장이 현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주)산성피앤씨는 동종업계에서 마닐라 및 합판지상자 대용인 ‘E골’ 최대 생산업체로 자리매김 했을 뿐 아니라, ‘신용’ 있는 회사로 발돋움했다.

인터뷰 내내 “업계의 화합”을 거듭 강조했던 김판길 이사장. 그의 경영 철학으로 미루어 볼 때 골판지 업계가 그동안 잔재했던 불신임을 해소하고 그의 바람대로 화합의 길을 모색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조합 이사장으로서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

박초혜 기자